

민주 “패트 법안 한국당 빼고 처리” 압박

황교안 한국당대표 이틀째 단식 “패트 협상·지소미아 종료 반대” 민주 “법적 절차따라 처리”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분회의 부의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단식 저지 투쟁에 들어가면서 정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가능성을 시사하는 한편 지소미아 종료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때문임을 분명히 하면서 한국당 압박에 나섰다. 반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이 ‘정치 악법’이며, 지소미아 종료는 안보 자해행위로 반드시 막아야 한다면서 황 대표의 단식투쟁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도 황 대표의 단식투쟁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한국당이 건설적 대안 제시와 진지한 협상을 하지 않고 패스트트랙 법안처리를 방해한다면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과 법적 절차에 따라 패스트트랙 처리에 나설 것”이라며 “한국당도 어지간장 놓을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여야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황 대표가 국민의 눈에는 참으로 어이없고 뜬금없는 ‘황당 단식’을 시작했다”면서 “한국당의 굶아 터진 내부 문제를 외부로 돌리려는, 속이 뻔히 보이는 정치 꼼수로 초보 정치 리더십”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빼고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공조했던 군소 야당과 법안 처리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단식장 찾은 **靑 수석**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왼쪽)이 21일 오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이틀째 단식 중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찾아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을 압박했다. 또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 한국당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초래돼 일본이 결자해지해야 하는 상황은 도의시키고 정부의 결정만 문제 삼고 있다는 비판 기조를 유지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단식농성 장소인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주재하고 단식 투쟁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 결사 저지 각오를 다졌다.

황 대표는 최고위에서 “지소미아 파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선거법, 공수처법 등 3대 정치 악법”이라면서 “정부가 국민을 지키지 않고 위기에 빠지게 한다면 제1야당 대표로 제가 할 역할을 저항하고 싸우

는 것밖에 없다. 필사즉생의 각오로 단식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23일 0시부터 종료되는 지소미아에 대해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 것은 명백히 부당한 일”이라면서 “하지만 이를 빌미로 지소미아를 종료하는 것은 자해 행위이자 국의 훼손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황 대표의 단식 투쟁에 대한 민주당과 다른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하면서 패스트트랙 법안의 총력 저지 의지를 다졌다. 김순례 최고위원은 “영하의 날씨에 자신의 몸을 희생하겠다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해 ‘민폐 단식’, ‘뜬금없다’는

논평은 국민에 대한 조롱이고 폄훼”라면서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히 처리해야 할 안건은 공수처법도 선거법도 아닌 민생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간 물밑 협상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당장, 황 대표는 이날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진행되는 정치협상회의에 불참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도 지난 20일부터 방미 일정을 수행하면서 국회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제1야당 대표가 단식 투쟁을 하는 상황에서 패스트트랙 해법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비례대표 당원·국민이 결정

국민공천심사단 참여... 온라인 투표로 명단 결정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확정하는 국민공천심사단에 일반 국민과 당원을 모두 참여시키고, 온라인 투표를 통해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심사단 중 200~300명 규모의 별도의 심사단을 꾸려 1박 2일 합숙을 통한 ‘속의 심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민주당 총선거기획단은 21일 국회에서 개최한 3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강훈식 기획단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 대변인은 “권리당원과 일반 국민 모두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공천심사단에 신청할 수 있다”며 “그 중 200~300명을 추출해 별도 속의심사단을 구성한다”고 전했다. 전체 심사단 가운데

심사 과정을 거쳐 구성되는 속의심사단은 1박 2일 합숙을 통해 비례대표 후보자들로부터 정견발표를 듣고 질의응답을 한 뒤 직접 평가를 하게 된다. 속의심사단 선출 방식은 추후 구성되는 비례대표공천관리위원회가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

일반 심사단은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는 정견발표를 시청, 온라인 투표를 통해 평가에 참여토록 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일반 심사단과 속의 심사단 투표 결과를 합산한 뒤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확정한다. 각 투표의 반영 비중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으며 비례대표 후보의 순번은 중앙위원회에서 순위 투표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한국당, 현역 의원 절반 이상 물갈이

총선거획단, 지역구 91명 중 30명 원천 배제 추진

자유한국당은 내년 총선 공천에서 현역 의원 중 3분의 1 이상을 탈락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당 총선거획단은 21일 회의를 열고 이같이 확정했다고 단장을 맡은 박맹우 사무총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박 사무총장은 “(컷오프를 포함해) 21대 총선에서 현역 의원의 절반 이상을 교체하는 개혁 공천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출마 의사가 있는 지역구 의원 중 3분의 1을 쳐내고, 불출마 의사를 밝힌 의원과 비례대표를 포함한 절반 이상을 새 인물로 공천하겠다는 의미다.

현재 한국당 소속 현역 의원은 108명이며, 이중 지역구는 91명이다. 91명 중 3분의 1인 30명은 ‘컷오프’, 즉 공천심사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비례대표

(17명) 중 일부와 불출마자, 심사 탈락자 등을 포함하면 절반(54명) 넘게 물갈이될 것으로 박 사무총장은 예상했다.

한국당은 새누리당 시절이던 2012년 19대 총선 공천에서 현역 컷오프 비율을 25%로 잡았고, 결과적으로 지역구 의원 41.7%가 공천을 받지 못했다.

컷오프를 33%로 높인 만큼, 절반 이상의 ‘물갈이’는 확실하다는 게 공천기획단 측 설명이다.

일률적 컷오프에 대한 현역 의원들의 반발 가능성에 대해 이진복 의원(총선거획단 총괄팀장)은 “과거처럼 누구를 찍어내기 위한 틀을 만드는 게 아니라”라며 “모두에게 똑같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틀을 적용하면 의원들도 납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문희상 의장 “4당 공조 공감대... 분담금 초당적 협력”

4당 대표와 정치협상회의... 선거법 의원정수 확대 놓고 이견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4당 대표는 21일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에 끝내 반대할 경우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합의안 마련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초당적으로 대응하고, 문 의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으로 제안한 ‘1+1+α’ 방안(한일 기업 출연 및 한일 국민 성금)을 검토하기로 했다.

문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사랑제에서 세 번째 정치협상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

을 모았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저지를 요구하며 전날 단식투쟁에 돌입한 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이날 회의에도 불참했다.

대신 실무 대표인 한국당 김선동 의원이 자리를 지켰다.

정동영 대표는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제 개혁안의 수정안을 가능하면 5당이 협의해서 만들어보되, 한국당의 입장이 완강하면 여야 4당 안이라도 만들어보자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의 경우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상정·표

결이 가능하게 되는 만큼 한국당과 협상을 이어가되, 만일을 대비해 여야 4당 합의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이 의원정수 확대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지만,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국민이 의원 수를 늘리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이와 관련, 정치협상회의의 실무협상에서 의원정수를 유지하는 경우와 확대하는 경우 모두에 대비해 안을 만들어보자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정치협상회의의 실무회의는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민식이법’ 처리 급물살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처리 필요성을 강조한 민식이법이 21일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에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민식이법을 의결했다. 법안은 또 해당 지자체장이 스쿨존 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김민식(9) 군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후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연합뉴스

양정철 “민주당 내 친문·비문 없어”

민주연구원 유튜브 출연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양정철 원장은 21일 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비문(비문재인) 논쟁에 대해 “우리 당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친문, 비문, 반문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양 원장은 이날 공개된 민주연구원 유튜브 채널인 ‘의사소통TV’에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함께 출연해 “과거에는 친노(친노무현), 비노(비노무현) 그런 게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 원장은 “2017년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문 대통령과 이 지사,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경선만큼 정당 이래 아름다운 경선은 없었다고 본다”며 “세 분의 환상적인 역할 분담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다만 세 분을 지지하는 분들이 소망하고자 하는 바가 강한 특성들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도 부풀려져서 비친다고 본다”며 “갈등이나 분열적 요소가 없다고 보진 않아요, 그것이 당의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는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2020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정시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학과	모집인원
인문	신학과	15
	한국어교육학과	2
사범	유아교육과	3
사회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코칭평생교육상담학 전공)	3
예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5
총 계		28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19. 12. 26(목) ~ 31(화)
· 전형일: 2020. 1. 7(화)

입학문의 ▶
학부 0621 605-1114
대학원 0621 605-1115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승화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2020학년도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60	
		신학과(Ph.D.)	7	
일반대학원	박사	목회학과(D.Min.)	2	
		유아교육학과(D.Ed.)	5	
		사회복지학과(D.S.W.)	8	
		상담심리치료학과(D.C.S.)	8	
		코칭심리학과(D.Psy.)	8	
		통합예술통계학과(D.C.S.)	5	
		석박사통합	통합예술통계학과(D.C.S.)	10
		석사	신학과(Th.M.)	20
		석사	유아교육학과(M.Ed.)	8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15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0	
		코칭심리학과(M.Psy.)	1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20	
		평생교육학과(M.Ed.)	10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20	
음악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6	
		실용음악학과(M.A.)	6	

■ 전형일정 · 원서접수 [특별전형] 신학대학원 2019. 11. 19(화) ~ 11.27(수)
[일반전형]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상담치료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2019. 12. 2(월) ~ 12. 11(수)
국제대학원, 음악대학원

일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지사로 36